

산업연관표를 통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고용효과 고찰

황성혁* · 최용휘** · 한규철***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 분야의 10억 원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1.3명이고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외식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여겨진다. 즉, 외식업의 사업체 규모 확장, 시설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외식업 분야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 그리고 15.2명은 타산업에 간접 유발된 취업자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키워드 : 외식산업, 고용유발효과, 산업연관표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로 경제활동의 여성 참여가 높아졌고, 한편 국민

* 주 저 자 :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hwangsh@sejong.ac.kr

** 교신저자 :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hwe001@sejong.ac.kr

*** 공동저자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전임강사, caseyhan@sjcu.ac.kr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에 대한 기대 효용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여성의 가사 활동 시간의 감소와 여가를 위한 비용 증가는 가공식품과 외식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따라서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식은 농산물과 식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외식산업의 성장은 이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생산과 유통분야에 유발수요를 발생시켜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우문호 외(2003), 유은미 외(2006), 천희숙, 한경수(2003), 김한주, 이충기(2009), 송영은 외(2008), 김미경, 이정실(1995) 등이 있다. 우문호 외(2003), 유은미 외(2006)의 연구는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가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거시적 경제환경이 원인변수가 되어 결과변수로서 외식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예측분석이다. 특히 우문호 외(2003)의 연구에서 소비자물가지수, GNP, 가계소비지출이 외식산업의 종사자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변수임을 분석하였다. 김미경, 이정실(1995)의 연구는 외식산업의 현황에 대해 2차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연구이다. 천희숙, 한경수(2003), 송영은 외(2008), 김한주, 이충기(2009)의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전·후방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서 미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노동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고용현황

1. 국내 외식시장의 현황

외식시장 규모는 1997년 30조 2천억 원에서 2008년 64조 7천억 원으로 11년 간 약 1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식산업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국내 외식산업의 매출은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감소하였으나 이후 매출액이 다시 증가하여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8년 외식산업의 매출액 감소는 IMF로 인한 가계의 외식지출 축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도시가구 근로자의 외식비 지출이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38.1%에서 1998년 3.8% 감소한 34.2%로 나타났으며 1999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표 1〉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구 분	매출액(십억원)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매출액 1억원 당 종사자 수(명)
1997	30,230	548,986	1,274,766	4.2
1999	35,314	585,409	1,406,785	4.0
2002	40,785	607,718	1,555,985	3.8
2005	54,953	643,773	1,700,621	3.1
2008	64,712	576,990	1,578,068	2.4
연평균증가율('97~'08)	6.50%	0.40%	1.80%	-

주 : 위 자료는 음식점업 및 주점업 대한 통계치임.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www.kosis.kr

이처럼 외식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동기간 매출액 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6.5% 성장하였으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연평균 0.4%,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외식시장의 성장만큼 고용창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외식업체 종사자, 매출액, 업체수의 전년대비 성장률의 추이를 보아도 매출액의 증가만큼 종사자수와 업체수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22% 성장하였지만 종사자 수는 9.2%, 업체 수는 4.0%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7년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6.6% 성장하였지만 종사자 수는 8.1%, 업체 수는 5.6% 성장에 그쳤다. 반면에 성장이 역신장할 경우 정반대로 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감소폭이 매출액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매출액 성장이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는데 종사자 수는 7.1%, 업체 수는 11.4% 감소하여 종사자 수와 업체수의 감소폭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식산업 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서 경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의 특성상 외식업체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쉽게 폐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수의 감소가 크게 증가한다. 또한, 외식업체의 대부분이 자영업주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폐업은 곧바로 종사자 수의 감소로 직결되어 종사자의 감소폭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 국내 외식시장의 고용현황

〈표 2〉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 및 종사자 분포 (2008년)

종사자 규모	사업체수(개)	비율(%)	종사자수(명)	비율(%)
합 계	576,990	100.0	1,578,068	100.0
1~4명	518,382	89.8	1,086,718	68.9

종사자 규모	사업체수(개)	비율(%)	종사자수(명)	비율(%)
5~9명	47,540	8.2	286,993	18.2
10~19명	8,386	1.5	106,836	6.8
20~49명	2,263	0.4	65,979	4.2
50명 이상	419	0.1	31,542	2.0

자료 : 전계서.

외식업체의 종사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4명 이하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체가 518,382개로 전체 사업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식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69%가 4명 이하의 소형 점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소 또는 영세 기업의 노동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부분이 중소 또는 영세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종사자 다수는 낮은 임금을 포함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은 이 산업에서 우수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표 3〉 외식업체의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단위 : 명)

년도	총 종사자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비중	상용 종사자수	비중	임시 및 일용 종사자수	비중
2002	1,586,409	1,015,237	64.0%	278,503	17.6%	292,669	18.4%
2003	1,594,789	927,767	58.2%	352,064	22.1%	314,958	19.7%
2004	1,556,008	904,285	58.1%	356,485	22.9%	295,238	19.0%
2006	1,450,469	821,218	56.6%	353,264	24.4%	275,987	19.0%
2007	1,567,414	874,708	55.8%	364,705	23.3%	328,001	20.9%
2008	1,578,068	856,995	54.3%	349,435	22.1%	371,638	23.6%

자료: 전계서.

외식업체의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2002년 약 1백만 명에서 2006년 82만 명으로 하락하였다가 2008년 다시 8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외식산업 전체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 64%로 가장 높았다가 해가 지나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54.3%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상용종사자의 비중은 2002년 17.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을 정점(24.4%)으로 다시 감소하여 2008년에는 2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수는 2002년 29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37만 명이 외식업에서 임시 및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비중 또한 2002년 18.4%에서 2008년 23.6%로 2002년에 비해 5.2% 증가하였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과 같은 임시 종사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간다는 것은 외식산업의 고용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식업종의 근무환경이 다른 서비스업종과 비교하여 쉽지 않아 이직률이 높는데, 임시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외식산업 전반의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임시종사자의 비율을 높여 인건비를 낮추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식산업의 특성상 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즉, 기업의 특수적 숙련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종사자의 개별적 숙련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리고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종사자는 자기 계발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임시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에서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산업과 관련한 종사자의 직종은 크게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그리고 음식서비스 관리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직종의 총 종사자 수는 2006년 21만 6천명에서 2009년에는 23만 7천명으로 약 2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20만 5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09년에 전년 대비 3만 2천명 증가한 것이다.

주방장 및 조리사의 고용인원은 2009년 80,955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4%를 차지한다. 주방장 및 조리사의 고용인원이 가장 많았던 2007년과 비교하면 약 1만 명의 고용이 감소한 수치이며, 비중 또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식과 일식의 주방장 및 조리사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양식의 주방장 및 조리사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식당관련서비스의 고용인원은 증가하였는데 2009년 현재 15만 4천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웨이터와 주방보조원이다. 관리자는 1,803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0.8%로 매우 미미하다.

직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주방장 및 조리사와 고급 인력에 해당하는 관리자의 고용은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을 요하지 않는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식산업이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직의 고용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대부분은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용 계층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식산업의 성장이 고용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대부분 임시직의 단순 서비스 노무직의 확대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외식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외식산업의 성장이 전문직의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 5인 이상 외식업체 직종별 고용인원 및 비중

(단위 : 명,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고용인원	비중	고용인원	비중	고용인원	비중	고용인원	비중
음 식 서 비 스 관 련 직	216,027	100	226,427	100	205,469	100	237,241	100
주 방 장 및 조 리 사	85,355	39.5	91,329	40.3	71,301	34.7	80,955	34.1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62,684	73.4	62,040	67.9	50,922	71.4	55,471	68.5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2,004	2.3	3,580	3.9	2,909	4.1	3,519	4.3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8,196	9.6	11,161	12.2	6,624	9.3	9,173	11.3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4,857	5.7	4,581	5.0	3,583	5.0	3,728	4.6
바 텐 더	1,781	2.1	520	0.6	269	0.4	602	0.7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7,614	8.9	9,969	10.9	6,994	9.8	8,463	10.5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011	58.8	131,177	57.9	133,177	64.8	154,482	65.1
패 스투 푸드 원					1,972	1.5	5,412	3.5
웨 이 터	73,270	57.7	73,761	56.2	55,568	41.7	68,008	44.0
주 방 보 조 원	51,918	40.9	54,256	41.4	67,449	50.6	72,528	46.9
음 식 배 달 원	1,823	1.4	3,160	2.4	3,417	2.6	2,283	1.5
기타음식서비스 종사원					4,771	3.6	6,252	4.0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1,880	0.9	3,401	1.5	991	0.5	1,803	0.8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노동부, 사업제고용특별조사, 2009.

Ⅲ. 산업연관표에 의한 외식산업의 노동연관 분석

1. 외식산업의 고용 및 취업 효과

〈표 5〉 외식산업의 노동 및 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년 도	' 00	' 03	' 05
고 용 계 수	14.0	12.5	11.3
취 업 계 수	33.3	27.5	24.6
고 용 유 발 효 과	19.4	17.5	16.4
취 업 유 발 효 과	51.8	42.9	40.0

자료: 한국은행(2007), 『2003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08), 『2005년 산업연관표』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의 10억 원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

자)는 11.3명(고용계수),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취업계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계수가 2000년 14.0명, 2003년 12.5명, 2005년 11.3명 그리고 취업계수는 2000년 33.3명, 2003년 27.5명, 2005년 24.6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므로 계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식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체 규모의 확장, 시설의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6.4명(고용유발효과)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외식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이 증가하면 16.4명이 임금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40명(취업유발효과)의 취업자가 전 산업에 걸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식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는 노동계수의 하락의 원인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즉, 외식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외식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를 전산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외식산업의 취업계수(24.6명)가 농림수산업(42.6명), 도소매업(25.4명), 숙박업(24.7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의미하고 외식산업의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의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의 잠재성이 다른 산업과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단위 : 명/10억 원)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전 산 업	12.2	7.8	10.4	7.1	8.7	6.1
농 립 수 산 업	58.2	4.3	49.3	3.7	42.6	4.1
광 산 업	7.2	6.5	5.6	5.2	5.4	5.0
제 조 업	4.4	4.0	4.2	3.8	3.4	3.0
음 식 료 품	4.8	3.5	4.3	3.2	3.9	2.8
섬 유 , 가 죽 제 품	10.9	9.5	9.7	8.4	8.6	7.2
목 재 , 종 이 제 품	6.3	5.5	5.8	5.1	5.2	4.6
인 쇄 , 출 판 및 복 제	13.2	10.9	9.8	8.2	8.9	7.4
석 유 , 석 탄 제 품	0.3	0.3	0.3	0.3	0.2	0.2
화 학 제 품	3.7	3.5	3.4	3.3	2.7	2.6
비 금 속 광 물 제 품	6.3	5.8	4.6	4.2	4.3	4.0
제 1 차 금 속	1.9	1.9	1.5	1.5	1.0	1.0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금속제품	10.7	8.9	9.0	7.4	6.6	5.5
일반기계	7.2	6.6	6.0	5.5	5.0	4.6
전기, 전자기기	3.9	3.8	3.8	3.7	3.2	3.1
정밀기기	9.1	8.4	7.6	7.1	7.2	6.7
수송장비	4.2	4.1	3.2	3.1	2.9	2.8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3.3	10.4	9.6	7.5	8.1	6.4
전력가스및수도	2.3	2.3	1.8	1.8	1.5	1.5
건설	12.6	11.9	11.6	11.1	10.5	10.4
서비스	15.9	10.4	15.2	10.3	13.1	9.2
도소매	41.3	16.8	35.0	16.0	25.4	11.6
음식점	33.3	14.0	27.5	12.5	24.6	11.3
숙박	33.4	19.6	28.9	17.0	24.7	14.3
운수및보관	15.3	11.0	15.0	10.5	12.1	8.4
통신및방송	3.7	3.6	3.8	3.6	3.1	3.0
금융및보험	11.0	10.9	8.0	7.9	6.2	6.2
부동산및서비스	6.2	4.9	6.5	5.4	7.5	6.8
공공행정및국방	15.5	15.5	11.6	11.6	10.2	10.2
교육및보건	21.3	19.1	17.0	15.3	16.0	14.6
사회및기타서비스	31.7	15.4	23.5	13.2	17.5	10.6

자료: 전계서.

〈표 7〉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 명/10억 원)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전 산업	18.1	9.9	16.9	11.2	14.7	9.9
농림수산업	62.9	7.2	57.6	7.1	51.1	7.2
광산업	9.8	8.3	9.8	8.1	10.4	8.3
제조업	13.2	7.2	12.1	8.6	10.1	7.2
음식료품	32.3	8.0	27.2	8.3	24.7	8.0
섬유, 가죽제품	22.7	13.2	18.2	14.7	17.2	13.2
목재, 종이제품	14.3	9.4	13.3	10.4	12.3	9.4
인쇄, 출판및복제	19.5	13.0	19.8	15.3	17.1	13.0
석유, 석탄제품	0.9	0.7	1.2	1.0	1.0	0.7
화학제품	9.7	6.7	10.1	8.2	8.5	6.7
비금속광물제품	13.8	8.8	12.6	10.1	11.0	8.8
제1차금속	5.3	4.0	7.1	5.6	5.1	4.0
금속제품	14.1	10.0	15.9	12.4	12.9	10.0
일반기계	16.0	10.0	13.9	11.5	12.2	10.0
전기, 전자기기	14.5	6.9	8.9	7.5	8.3	6.9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정 밀 기 기	19.4	11.6	15.2	12.7	13.9	11.6
수 송 장 비	12.7	8.2	11.1	9.2	9.9	8.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21.4	12.2	17.6	13.1	16.4	12.2
전 력 가 스 및 수 도	5.3	3.2	4.4	3.9	3.6	3.2
건 설	17.0	14.8	18.7	16.3	16.6	14.8
서 비 스	21.5	12.6	20.5	13.7	18.4	12.6
도 소 매	40.0	15.2	40.1	19.6	30.4	15.2
음 식 점	51.8	19.4	42.9	17.5	40.0	16.4
숙 박	38.3	22.8	33.3	20.1	28.7	17.2
운 수 및 보 관	16.5	10.7	19.0	13.4	15.4	10.7
통 신 및 방 송	12.8	7.5	8.4	6.9	9.7	7.5
금 융 및 보 험	13.9	9.6	11.9	10.7	10.5	9.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0.6	9.8	10.9	8.7	11.7	9.8
공 공 행 정 및 국 방	18.4	13.0	16.4	14.7	14.7	13.0
교 육 및 보 건	21.4	17.4	21.7	18.5	20.2	17.4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32.3	15.5	30.8	18.0	24.9	15.5

자료: 전계서

서비스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유통업(도소매업)과 외식업(음식점업)의 취업계수를 비교하면, 2000년 유통업의 취업계수가 41.3명, 외식업이 33.3명으로 8명 정도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외식업의 노동생산성이 유통업보다 훨씬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5년에 와서는 그 차이가 0.8명으로 줄어들면서 유통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 수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통업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외식산업의 취업계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화와 함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음식점의 증가는 외식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취업계수의 감소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산업의 취업유발 및 고용유발계수를 전산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외식산업의 취업유발계수(40.0명)가 농림수산업(51.1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의 고용유발계수(16.4명)는 교육 및 보건(17.4명), 숙박업(17.2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외식산업의 수요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2. 외식산업의 피용자 및 자영업자 의존도

양적인 측면의 고용창출효과는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창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피용자 의존도는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총 취업자 수 중에서 임금근로자(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용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용흡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주 의존도는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영업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창업을 통한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40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지만 대부분이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로 볼 수 있다. 외식산업의 자영업주 의존도가 59%로 전산업 평균 32.7%, 서비스업 평균 31.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창업을 통한 고용 확대는 외식산업의 가지는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식시장의 진출입의 제한이 없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방식 도입으로 인해 특별한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타 산업에 비해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용이하지만 이로 인해 외식 시장 참여자 규모가 영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외식업체의 특성상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시급근로자이다. 대학 졸업장을 가진 청년 실업의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 하에서 외식산업이 이들의 고용 흡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8〉 우리나라 산업별 피용자 및 자영업자 의존도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피용자 의존도1)	자영업주 의존도2)	피용자 의존도	자영업주 의존도	피용자 의존도	자영업주 의존도
전 산 업	54.7%	45.3%	66.3%	33.7%	67.3%	32.7%
농 립 수 산 업	11.4%	88.6%	12.3%	87.7%	14.1%	85.9%
광 산 업	84.7%	15.3%	82.7%	17.3%	79.8%	20.2%
제 조 업	54.5%	45.5%	71.1%	28.9%	71.3%	28.7%
음 식 료 품	24.8%	75.2%	30.5%	69.5%	32.4%	67.6%
섬 유 , 가 죽 제 품	58.1%	41.9%	80.8%	19.2%	76.7%	23.3%
목 재 , 종 이 제 품	65.7%	34.3%	78.2%	21.8%	76.4%	23.6%
인 쇄 , 출 판 및 복 제	66.7%	33.3%	77.3%	22.7%	76.0%	24.0%
석 유 , 석 탄 제 품	77.8%	22.2%	83.3%	16.7%	70.0%	30.0%
화 학 제 품	69.1%	30.9%	81.2%	18.8%	78.8%	21.2%
비 금 속 광 물 제 품	63.8%	36.2%	80.2%	19.8%	80.0%	20.0%
제 1 차 금 속	75.5%	24.5%	78.9%	21.1%	78.4%	21.6%
금 속 제 품	70.9%	29.1%	78.0%	22.0%	77.5%	22.5%
일 반 기 계	62.5%	37.5%	82.7%	17.3%	82.0%	18.0%
전 기 , 전 자 기 기	47.6%	52.4%	84.3%	15.7%	83.1%	16.9%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피용자 의존도1)	자영업주 의존도2)	피용자 의존도	자영업주 의존도	피용자 의존도	자영업주 의존도
정밀기기	59.8%	40.2%	83.6%	16.4%	83.5%	16.5%
수송장비	64.6%	35.4%	82.9%	17.1%	82.8%	17.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57.0%	43.0%	74.4%	25.6%	74.4%	25.6%
전력가스및수도	60.4%	39.6%	88.6%	11.4%	88.9%	11.1%
건설	87.1%	12.9%	87.2%	12.8%	89.2%	10.8%
서비스	58.6%	41.4%	66.8%	33.2%	68.5%	31.5%
도소매	38.0%	62.0%	48.9%	51.1%	50.0%	50.0%
음식점	37.5%	62.5%	40.8%	59.2%	41.0%	59.0%
숙박	59.5%	40.5%	60.4%	39.6%	59.9%	40.1%
운수및보관	64.8%	35.2%	70.5%	29.5%	69.5%	30.5%
통신및방송	58.6%	41.4%	82.1%	17.9%	77.3%	22.7%
금융및보험	69.1%	30.9%	89.9%	10.1%	91.4%	8.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92.5%	7.5%	79.8%	20.2%	83.8%	16.2%
공공행정및국방	70.7%	29.3%	89.6%	10.4%	88.4%	11.6%
교육및보건	81.3%	18.7%	85.3%	14.7%	86.1%	13.9%
사회및기타서비스	48.0%	52.0%	58.4%	41.6%	62.2%	37.8%

주1: 피용자 의존도=고용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

주2: 자영업자 의존도=(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

자료: 전계서

3. 외식산업의 타산업의 취업유발효과

〈표 9〉 외식산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10억 원)

년도	취업유발인원 (A)	직접취업유발인원 (B)	간접취업유발인원 (C=A-B)	간접취업유발률 (C/B, %)
2000	51.8	33.6	18.2	54.3%
2003	42.9	27.7	15.2	54.6%
2005	40.0	24.9	15.1	60.9%

자료 : 전계서.

위의 표는 외식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전산업에 유발시키는 노동파급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2005년 외식업의 취업유발인원은 40명인데, 이때 외식업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으로 외식업 부문이 직접 유발한 노동량을 뺀 15.2명이 타산업으로 간접 유발된 취업자가 된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인 간접 취업유발률을 보면 2000년 54.3%, 2003년 54.6%, 2005년 60.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의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00%를 하회하고 있어 타산업에 미치는 외식업의 취업유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IV. 결론

외식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외식 시장도 커져갈 것이고, 따라서 고용도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듯이 창출되는 고용은 전문직보다는 단순 서비스 직종의 창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체의 단순 서비스 직종은 대부분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고용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외식산업의 성장이 양질의 고용창출을 유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외식업은 서비스업종으로 유통업과 더불어 힘든 업종이기에 일하기를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따라서 점점 외국인 근로자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성장은, 대부분 자영업 또는 가족중심의 영세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기 퇴직이나 청년 실업으로 인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 창업이라 하여 많은 음식점들이 창업되어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생계형 외식업체이기 때문에 경기에 따른 고용의 불안이 있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의 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외식산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이 발생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임금근로자의 수는 16.4명(고용유발계수)이다. 그리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40명(취업유발계수)이 전 산업에 걸쳐 증가한다. 외식업에 대한 수요 증가(10억원)로 유발된 취업자 40명 중 24.9명은 외식산업 부분에 유발된 취업자이면 나머지 15.1명은 타산업 부분으로 유발된 취업자수이다. 취업유발효과만을 가지고 타 산업과 비교하면 농림수산업(51.1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취업유발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외식산업의 수요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식산업의 고용창출은 창업을 통한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지 임금근로자의 고용창출과는 괴리가 있다. 외식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용이하고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참여자의 규모가 영세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쉽게 퇴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영세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고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시급근로자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외식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등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외식산업 일자리의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은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주어 외식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이는 다시 외식산업의 일자리 증가

제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외식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단기적인 정책과 외식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서 일시적인 실업의 해소와 산업 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의 수요는 기업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외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식업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외식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이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논문접수일: 2011. 5. 3

• 게재확정일: 2011. 5. 20

❖ 참고문헌 ❖

- 김미경, 이정실(1995).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7, 23-40.
- 김한주, 이충기(2009).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음식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외식경영연구, 12(1), 111-126.
- 노동부(2009).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송영은, 신규희, 이수범(2008).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호텔경영연구, 17(2), 71-82.
- 우문호, 이정형, 정익준(2003). 거시적 경제환경변화가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5(2), 79-98.
- 유은미, 김민지, 송학준(2006). GDP 예측을 통한 국내 외식산업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제60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발표대회 학술연구발표논문집(2), 82-95.
- 천희숙, 한경수(2003).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국내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5), 763-769.
- 통계청. www.kosis.kr. 도소매업서비스.
- _____. _____. 서비스업총조사.
- _____. _____. 가계동향조사.
- _____. _____. 전국사업체조사.
- _____. _____. 국민계정.
- _____.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 _____. 경기·기업경영(사업체).
- 한국외식정보(주)(2009). 2009 한국외식연감.
- 한국은행. ecos.bok.or.kr.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은행(2007). 2003년 산업연관표.
- _____(2008). 2005년 산업연관표.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Effect of Food Service in Korea through an Input-output Table

Hwang, Seong-hyuk*•Choi, Yong-Hwe**•Han, Kyu-Chul***

ABSTRACT

Under the crisis of global economy, a creation of employment became an important economic issue in Korea. Recently, the structure of Korea economy has been shifted to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So, Korea economy has been placed on growth without job. Food service industry to overcome this situation has begun to receive attention as a good alternativ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up on the national employment in Korea using input-output table. Food service industry has a high influence on related industries that are within a food system in respect to job cre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support policies by government to develop a food service industry.

Key Words : Food Service Industry, Input-output analysis, employment-inducing effect

* First author, Visiting professor of Marketing, College of Business, Sejong University, hwangsh@sejong.ac.kr

** Corresponding author, Visiting professor of Marketing, College of Business, Sejong University, hwe001@sejong.ac.kr

*** Co-author,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Business, Sejong Cyber University, hwe001@sejong.ac.kr